



정교회주보

제2499호

2024.11.17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시리아의 성 테클라 수녀원(사진)은 다마스쿠스 북동쪽으로 56km 떨어진 해발 1,500m가 넘는 험준한 산등성이에 있는 마알룰라 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이 마을은 예수님과 초대 교회가 사용했던 언어이기도 한 아람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마지막 세 지역 중 하나로 유명하다. 지금의 수도원은 테클라 성녀가 거주하던 동굴 주변에 1935년 세워졌다.



루가 제9주일
성 그레고리오스
네오케사리아의 주교
(제4조 • 조과복음 10)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4조 부활 찬양송 82
- 주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성모 입당 축일 시기송 204
-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봉)295
- 복음경 : 루가 12,16~21 129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너희는 갈릴래아로 가라

제자들은 갈릴래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구세주를 따르기 시작한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그때의 기억은 그들의 영혼 안에서 마치 봄의 신선함처럼 늘 간직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주간의 그 불충(不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의 이 새로움, 이 열정 안으로 다시 데려가길 원하셨습니다. 처음 만남의 감동과 결단을 그들 안에 다시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해 생동하던 갈릴래아에서 자신의 계시를 완성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갈릴래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봐주시고 내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내가 의식하게 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하늘의 노벨상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지난달 우리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으며 큰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강 작가의 작품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하고 시적인 산문”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재능과 부단한 노력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 노벨상을 받게 되었으니, 한강 작가는 과연 이런 축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인간적 노벨상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믿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노벨상’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로가 필립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언급한 ‘하느로부터 부르신 상’(필립비 3,13-14 참조)입니다.

바울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신이 ‘값진 진주’(마태오 13,46)를 발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다른 모든 것

은 중요하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필립비 3,8-9) 바울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이래로,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 쉬지 않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나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필립비 3,14)

이 세상의 노벨상과 모든 물질적 재화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하늘의 노벨상’, 즉 ‘하느로부터 부르신 상’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이상은, “그날에 정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디모테오 후 4,8)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킨”(디모테오 후 4,7) 모든 이들에게 주실 상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조언 9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너희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 두어라”(루가 9,44)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섯 가지 감각을 주셨는데,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오감(五感)은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이 되어 우리의 세계를 탐구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타락한 세상처럼 우리의 다섯 가지 감각도 언제나 바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빈곤과 편견과 불의를 ‘봅니다.’ 그러나 자주 그런 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써 이 세상과 ‘접촉합니다.’ 하지만 부패에 대해 무관심하며, 또한 이 세상만물의 신성함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향내를 ‘맡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있는 병자를 방문하여 맡는 냄새에 구역질을 하고는 도망쳐 버립니다.

우리는 음식과 마실 것 등을 ‘맛보고는’ 지나치게 섭취하며... 그럼으로써 음식을 낭비하고,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복음경(루가 9,44)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잘 사용하라고 일깨워주셔야만 하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 요아니스 단치 신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에 의해 방해받아 흐트러지거나 열정을 잃지 마십시오. 그런 것은 사악한 악마적인 두려움입니다. 하느님과 천사들, 성인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더 신경쓰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마치 당신 마음의 빛처럼 당신을 따라다니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서 그 값진 단어가 사라지도록 결코 놔두지 마십시오. 분명코 사랑은 그곳에 홀로 있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홀로 참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 성 요한 크론스타트(1829-1909)

저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삶'에서



주간 예배 안내

* 11월 21일(목)

성모 입당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양구 성당 철야예배

성 안드레아 첫 사도 축일 기념 철야예배가 11월 29일(금) 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차량, 숙소, 식사 준비를 위해 서울 성당 사무실로 2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 서울 성당 세례성사

지난 주일(10일), 성 막심 성당에서 성찬예배 중에 로만대 신부 집전으로 첸 마리아, 첸 에바 (유아)의 세례성사가 거행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부산 성당 이웃돕기 바자회

지난 3일(주일)에 연례행사인 이웃돕기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 음식과 음료, 의복, 생활용품, 도서 등을 서로 기증하고 구매하면서 즐겁고 뜻깊은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익금은 정교인 중에, 또 지역사회에 어려운 분들께 제공할 것입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한국외대 학생들 서울 성당 방문

지난 9일(토요일), 한국외대 그리스학과 학생들 약 30명이 수업의 일환으로 서울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한 식사를 나누는 후, 지하 박물관에 소장된 고대 그리스 조각물을 관람하고,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정교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성의 샘터

믿음의 불꽃

로트 수도자가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시절에 그의 사부였던 요셉은 그에게 자주 이런 조언을 해주었다.

“만약에 그대의 가슴속에 믿음의 불꽃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결코 좋은 수도자가 되지 못할 것이오. 이 믿음의 불꽃은 세상의 명예나 안락을 무시할 수 있게 그대를 비취줄 것이며, 그대의 의지를 끊고 하느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게 해줄 것입니다.”

